

## "제주 해녀는 공동체 문화의 상징"

강태석 제주도 해양개발과장

데스크승인 2014.07.10 이윤주 기자 | yjhn@jejunews.com



2013년 12월 19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는 201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대상 한국대표 종목으로 제주 해녀문화를 선정하기로 심의·의결 했다.

제주 해녀문화가 201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 대상 한국대표 종목으로 선정된 것은, 제주해녀가 바다 생태환경에 적응하면서 해양지식을 익히고, 자연과 공존하는 공동체 문화의 가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강태석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개발과장은 "제주해녀는 공동체 문화의 상징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에 등재 되면 제주는 문화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해녀들의 공동체 문화 속에는 자신들만의 관습적·관계적 규약에 따라 해산물의 채취 자격, 방법과 기간, 금채 기간을 정하는 공동 입어가 있다. 또 '할망바다' 등을 만들어 나이든 해녀

를 배려하는 문화, 옛 불턱에서 자율적인 토론을 통해 자신들의 규약을 만들어 해녀 회장의 통솔 하에 작업하는 문화가 있다"며 "제주 해녀문화는 자생적인 공동체 문화를 포괄하며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과장은 해녀 문화의 전승·보존에 대해 언급하며 "해녀들의 작업 방식은 변형될지 몰라도 공동체 문화라는 관점에서 해녀의 명맥은 이어질 것"이라며 "수산 자원으로 소득 창출이 가능하고, 해녀학교를 통한 기술 습득이 이뤄지면 해녀문화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네스코 본부는 올해부터 등재 심사 건수를 한 해 50건으로 제한, 무형유산이 적게 등재된 국가, 공동 등재 국가 우선으로 심사한다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제주해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은 내년 3월 말 다시하게 되며, 유네스코 심사는 2016년 말에 가능하게 됐다.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